



7일 정부대전청사 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휠체어 펜싱 플뢰레경기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한 변상민(오른쪽)이 경기 대표 안성관의 공격을 되받아치고 있다. /대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양궁 이미향 '2관왕' 광주 불링서 금 2개 추가

전국장재인체전 이틀째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틀째인 7일 광주가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전남 사전경기에서 동메달 하나를 수확하는데 그쳤던 전남은 양궁에서 2관왕을 배출했다. 광주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인체전 불링 지체 남자 2인조(송기수, 임채현)와 지체 여자 2인조(조미경, 조성덕)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 트랙 시각 남자 800m에 출전한 이경대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광주의 금메달리스트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는 이외에도 사이클, 수영, 육상, 펜싱, 사격에서 은메달 7개를 추가했다. 역대 남자 -48kg의 윤용이 3개의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동메달도 8개가 쏟아지면서 종합 7

위를 향한 광주의 향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대회 첫날 동메달 하나로 부진했던 전남은 양궁과 역도에서 금메달 4개를 가져갔다. 양궁 여자 리커브60m와 70m에 출전한 이미향은 연달아 금과 은을 따내면서 2관왕이 됐다. 역도 여자 +82.5kg에 출전한 김미선은 파워리프팅 금메달에 이어 웨이트리프팅, 벤치프레스종합에서 은메달 두 개를 따냈다. 다관왕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역대 선철성은 오심으로 금메달 목에 거는데 만족해야 했다. 탁구의 한관왕은 16강 경기에서 현 국가대표를 꺾고 8강에 진출해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격의 이윤리가 8일 전남의 첫 3관왕을 겨냥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구논란' 윤석민 명예회복 버린다



KIA 타이거즈의 '태극콤비' 이용규와 윤석민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영광재현에 나선다. 6일 광주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선 야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다.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부터 함께 했던 외야수 이용규와 투수 윤석민은 베이징 올림픽과 제 2회 WBC에 이어 또다시 '태극콤비'를 이뤄 금메달 캐기에 나서게 됐다. 올 시즌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고전했던 이용규는 특유의 근성 플레이가 되살아나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국제무대에서 유독 빛이났던 이용규는 다시 한 번 인기몰이를 준비하고 있다. WBC에서 일본 우쓰미에게 빈볼까지 맞았던 이용규는 도루를 하다 헬멧이 깨지는 수난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용규는 끝까지 베이스에서 손을 떼지 않는 투혼으로 WBC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용규는 "대표팀으로 뛰면서 병역혜택 등 많은 것을 얻은 만큼 그걸 갚는다는 생각으로 대표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팀 성적이 좋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용규는 후반기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표팀 테이بل 세터 자리를 노리고 있다. 팬들도 20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이기도 한 이용규의 독한 플레이를 국제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

'태극콤비' 이용규와 AG 금사냥... KIA 1군 복귀 본격 몸만들기

다. 올 시즌 여러 차례 KIA 팬들을 울렸던 에이스 윤석민도 광주 마운드에 오른다. 자해소통의 주인공이 됐던 윤석민은 복귀 후 일단 사구로 곤욕을 치르는데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또 다시 그라운드를 이탈했다. 재활군 신세지만 기술위원회는 국제 경험과 검증 받은 구위 등을 고려해 윤석민을 최종 낙점했다.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마운드 감초역할을 하며 9전 전승을 조력했던 윤석민은 WBC에서도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며 국가대표 에이스로 발돋움했다. 특히 메이저리그 강타자들이 즐비한 베네수엘라와의 준결승전 호투는 인상적이었다. 윤석민은 준결승 선발로 출격해 150km가 넘는 직구와 명

품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앞세운 '베짱투'로 6과 3분의 1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다저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의 기립박수 속에 마운드를 내려왔다.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는 윤석민은 마운드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재활군에 합류했지만 그동안은 '마음 추스르기'에 중점을 뒀다. 7일 웨이트 훈련 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들어간 윤석민은 1군 마운드에 올라 시즌을 마감할 계획이다. 윤석민은 "대표팀 합류 소식이 조금 놀랐다. 올 시즌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았고, 팀 성적도 좋지 못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결승타 통산 250타점

11월 광주 아시안게임에 나선 야구대표팀의 중심타자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깨끗한 결승 적시타를 때려내고 개인 통산 250타점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이절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

인절스와 방문경기에 3번타자 우익수로 출전, 2-2로 맞선 9회초 2사 1,2루에서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려 2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클리블랜드가 3-2로 이기면서 추신수의 안타는 결승타가 됐다. 전남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팀 승리를 이끌어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5일 시애틀과 경기 후 이틀 만에 타점을 보낸 추신수는 시즌 타점 70개, 개인 통산 250타점째를 기록했다. 2006년 22타점을 시작으로 2008년 66타점, 그리고 지난해 86타점을 올리며 간판 해결사로 입지를 굳혔다. 올해에도 25경기를 남긴 현재 홈런과 도루를 각각 16개와 17개를 수확, 2년 연속 호타준족의 상징 20홈런-20도루 클럽을 향해 순항 중이다. /연합뉴스

'테니스 요정' US오픈 탈락



워즈니아키에 0대2 패

마리아 샤라포바(17위·사진)가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4회전에서 톱시드의 캐롤라인 워즈니아키(2위·덴마크)에 져 탈락했다. 샤라포바는 대회 8일째인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여자 단식 4회전에서 워즈니아키에 0-2(3-6 4-6)으로 완패했다. 샤라포바는 지난해 대회 준우승자인 워즈니아키를 맞아 강력한 포핸드 스트로크로 맞섰지만 첫 세트에서 세 번 연속 더블볼트로 서브 게임을 내주는 등 이날 경기에서 모두 3개의 실책을 쏟아냈다. 남자 단식에서는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가 4회전 상대 마디 피시(21위·미국)에 3-0(6-3 6-4 6-1)완승을 거두며 8강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이승엽, 요미우리와 사실상 결별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는 이승엽(34)이 1군 복귀 3일 만에 다시 2군으로 추락하면서 사실상 소속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결별 절차를 밟고 있어 앞으로 거취가 관심을 끈다. 지난 3일 74일 만에 1군 무대를 밟은 이승엽은 세 경기에서 5타수 1안타를 치는 데 그치고 골장 집을 썼다. 시즌 막바지에 주어진 기회마저 살리지 못하면서 이승엽은 요미우리에서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연합뉴스

이승엽은 올해 1루에 막강한 경쟁자 다카하시 요시노부가 돌아오면서 팀내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 5월까지 51경기에 주로 대타로 교체 출장하면서 홈런 5개를 치고 타율 0.174(86타수 15안타)의 저조한 성적만을 남겼다. 올해로 4년 계약이 끝나는 이승엽을 요미우리가 다시 붙잡을 가능성은 극히 작은 만큼, 요미우리와 인연도 이것으로 끝이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Feel Motel

**1객실 1투차
도심속
평동무인텔!**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www.feelmotel.kr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Feel** 을 쳐주세요!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테마룸 → **썬 누메트 두바이 산토리니 씨름 재부라 플라워 피스 완기등 네이처**